23일 새벽 16강 운명…1무 한국도 1패 알제리도 "사생결단"

혼돈의 H조…2차전은 벼랑끝 전쟁

23일 새벽 4시 한국과 알제리의 벼랑 끝 전쟁은 불가피하게 됐다.

벨기에에 패배한 알제리는 한국을 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고, 러시아와 비긴 한국도 알제리를 반드시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H조는 벨기에가 승점 3(1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한국과 러시아가 승점 1(1무), 알제리는 0(1패)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본선 조별리그에서는 보통 2승(승점6)을 거두면 최소 조 2위를 확보, 16강에 진출한다. 세 국가가 2승1패, 한 국가가 3패를 기록해 2승으로도 탈락하는 드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H조에서는 이미 1무가 나와 이 경우의 수는 사라졌다.

승점이 4(1승1무1패)에 그쳐도 경쟁국 성적에 따라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 독일월드컵 때 1승1무1패로 조별리

승점 3점 놓고 배수의 진
러시아전 자신감 붙은
태극전사들 "충분히 제압"

그에서 탈락했으나, 2010년 남아공월드컵 때는 같은 성적으로도 16강에 나갔다.

전력 판도와 승점을 함께 따질 때 한국은 알제리로부터 승점 3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FIFA 랭킹 11위의 벨기에는 유럽이나 남미의 전통 강호와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호화전열을 갖추고 있어 승점을 얻기 어려운 상대여서 알제리를 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물론 알제리도 아프리카의 거센 경쟁을 뚫고 본선에 출전한 강호이며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도 22위로 한국(57위)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알제리가 러시아, 벨기에보다 어려운 상대는 아니라서 총력전을 펼치면 승점 3을 뽑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알제리와의 2차전을 대비하는 데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고무적인 사실은 태극전사들도 이날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적지 않은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이다.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청용(볼턴), 김영권(광저우 헝다) 등은 "알제리가 강하지만 충분히 꺾을 수 있다"고 총력전의 의지를 다졌다.

한국이 필사적인 만큼 알제리도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알제리는 이날 앞서 열린 벨기에와의 1차전에서 1-2로 역전패해 벼랑에 몰렸다. 한국에 패배하면 그대로 16강 탈락이 확정된다. 필승 외에 해답이 없는 알제리는 벨기에와의 1차전과는 달리 한국을 상대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술 대형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세의 화끈한 대결로도 번질 수 있는 알제리와의 일전에서 한국이 16강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반 주도 알제리 후반 체력 저하로 측면 돌파 잇단 허용

1차전서 드러난 H조 각국 전력

벨기에도 수비 약점 드러내

한국과 일전을 앞둔 H조 벨기에(FIFA랭킹 11위)와 알제리(FIFA랭킹 23위)의 18일 경기 결과 두 나라 모두 수비불안을 드러냈다. 16강 진출을 위해 한국팀이 반드시 공략해야 할 부분이다.

18일 오전 1시〈한국시각〉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에스타디우 미네이랑에서 열린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벨기에가 알제리에 2-1로 승리했다.

상대적인 약체로 평가받던 알제리는 전반 25분 소피앙 페굴리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 갔으나, 후반 벨기에의 마루앙 펠라이니, 드리스 메르텐스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알제리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지만, 사실상 4-5-1에 가까운 전술로 두텁게 수비벽을 쌓았다. 최전방 공격수 엘 아라비 수다니를 제외한 전원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알제리는 한국팀의 1승 제물로 꼽혔지만 실제 드러난 전력은 예상보다 탄탄했다. 철저하게 수비적으로 임한 알제리는 수비숫자를 늘려 벨기에 공격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며, 상대팀 수비 허점이 드러날 때만 역습을 노렸다.

상대적인 약체로 평가됐던 알제리는 전반전에 경기를 주도하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다. 반면, 후반전은 벨기에가 주도권을 뺏어오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날 알제리는 후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약점도 드러냈다. 후반 30분 이후 알제리 수비벽은 완연히 지친 표정을 보이며 상대의 측면 돌파를 허용했다. 후반 그라운드를 밟은 메르텐스에게 계속 돌파를 내주며 위험한 장면을 노출했다. 여기에 후반 교체 투입된 마루앙 펠라이니의 공격에 연신 돌파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 내내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던 벨기에는 후반 에당 아자르와 드리스 메르텐스의 측면 돌파를 앞세워 첫 승을 거머쥤다.

18일 경기를 통해 한국과 운명의 결전을 벌여야 할 두 팀 모두 수비 문제를 드러냈다. 알제리(23일)와 벨기에(27일)와 경기를 치르는 한국 대표팀은 두 팀의 수비 허점을 공략하는 것이 16강 진출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성용 중원 지배하고 홍정호는 원톱 코코린 꽁꽁 묶어

광주·전남 태극전사 러시아전 활약

윤석영, 측면 돌파 역습 돋보여

기성용·홍정호·윤석영·김보경…. 광주·전남 태극전사들, 잘 싸웠다. 특히 '중원의 핵' 기성용과 중앙 수비수 홍정호는 해외사이트 평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광주의 아들 기성용(25·스완지시티)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러시아 선수들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전매특허인 정확한 롱 패스로 공격의 물꼬를 트는 등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미국의 스포츠전문웹진인 블리처리포트는 기성용에게 양 팀 선수 중 가장 높은 8점(10점 만점)을 선사했다.

기성용은 경기를 마친 뒤 "첫 경기에서 부담을 잘 털어서 다행이다. 분위기가 점점 살아난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조선대를 졸업한 홍정호는 러시아 선발 원톱 스트라이커 알렉사드르 코코린을 꽁꽁 묶었다. 그는 부상 전까지 자신감 있게 대담하면서도 견고한 수비를 펼쳤다. 부상을 당한 홍정호는 후반 28분 교체됐다.

광양제철고를 나온 윙백 윤석영은 수비와 공격을 넘나들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다. 후반 7분 상대 역습 상황에서 볼을 뺏어 측면의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모습은 날카로웠다. 후반 15분에도 왼쪽 측면을 거침없이 뚫어내며 러시아 수비진은 뒤흔들었다. 장기인 오버래핑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구례 출신 김보경은 후반 38분 '조커'로 투입됐다. '박지성의 후계자'라 불리는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4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가 열린 18일(한국시간) 오전 브라질 쿠이아바 판타나우 경기장에서 홍정호와 코코린이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